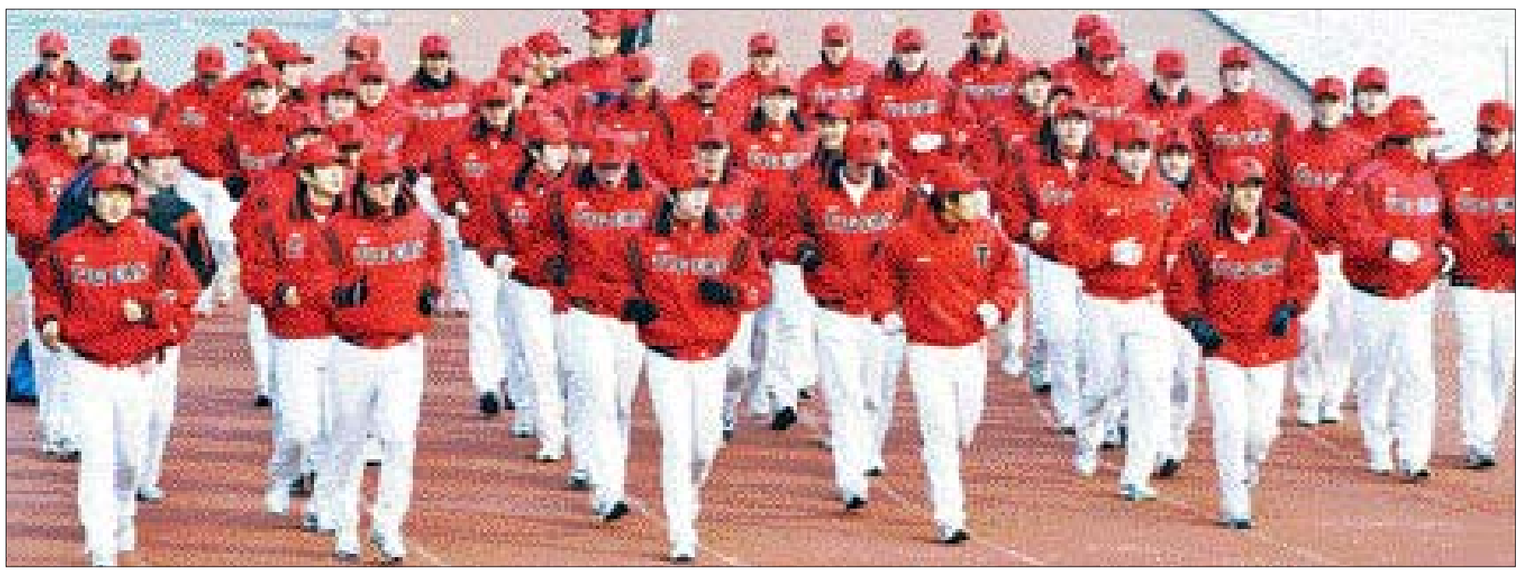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 미리보는 2008 프로야구 <1> KIA, V10 가는 길



KIA타이거즈가 시범경기를 1위로 장식하며 'V10'을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즌 초반 '빅 2'(SK·삼성) 잡아라"

2008 프로야구가 오는 29일 전국 4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대장정에 들어간다. 투타 전력보강으로 우승권을 넘보는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 전망, 주목해야 할 주전·신인 선수, 전문가의 관전포인트 등을 4차례에 걸쳐 싣는다.

빅리거 영입 등 안정된 전력 갖춰
시범경기 1위 여세 가을잔치까지

"SK, 삼성 잡아야 우승간다!"

KIA타이거즈가 시범경기에서 10승 3패로 승승장구하며 1위를 차지해 올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조범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서재응, 호세리마, 발데스 등 빅 리거가 가세하면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범경기에서 안정된 전력으로 6연승을 이어나가는 등 선수들의 의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공·수·주 모두 몰라보게 달라진 지난해 끝찌 KIA는 8개 구단 중 가장 강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V10'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범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KIA를 4강 후보에 넣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시범경기에서 단연 눈에 띄는 팀은 KIA로 연습량이 부족했던 최희섭, 서재응은 시범경기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부상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강화됐고, 경쟁 구도를 통해 백업요원이 안정된 것이 시범경기 1위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올 시즌 프로야구 판도를 2강 5중 1약으로 꼽고 있다. SK, 삼성의 강세 속에 KIA를 필두로 두산, 롯데, LG, 한화가 '가을잔치'합류를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다.

김용희 SBS 해설위원도 "KIA의 투·타가 상당히 안정됐고, 선수들의 의욕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SK, 삼성과 함께 KIA와 두산이 4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고른 전력으로 한 팀의 독주 없이 시즌 초반 치열한 순위 다툼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모두 SK와 삼성을 우승후보로 꼽고 있다. 조범현 감독도 우승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SK와 삼성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V10'을 위해서는 탄탄한 마운드의 SK와 삼성을 꺾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는 지난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레이번-김광현의 막강한 원투펀치가 버티고 있고, 새 용병 쿠비얀의 활약도 예상된다. 좌완 이승호의 합류와 함께 조웅천과 마무리 정대현이 지키고 있는 불펜의 힘이 막강하다. 허 위원은 "시범경기에서 7위에 그쳤지만 SK만의 여유라고 볼 수 있다. SK는 토털 야구를 하기 때문에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시즌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돌아온 에이스 배영수가 든든하다. 시범경기 3경기에 나선 배영수는 15이닝 동안 13피안타 11탈삼진 3자책점으로 1.80의 방어율을 마크하고 있다. 특급 허리 권오준과 마무리 오승환도 속속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양준혁, 심정수가 버티고 있는 막강 타선도 마운드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KIA 'V10'의 키는 서재응과 호세리마가 쥐고 있다. 두 빅 리거가 수성하게 될 마운드의 높이에 따라 4강 이상의 결과를 점치게 된다. 두 선수는 시범경기를 통해 무난히 시즌 리허설을 끝냈다. 하지만 100%로 전력을 갖춘 정식 국내 야구 무대 적응은 만만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올 시즌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시즌 초반 기선 싸움이 중요하다. 개막전 원투펀치로 나서게 될 두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2008시즌 KIA가 '가을잔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두 선수의 노련미에 달려 있는 셈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4일 충훈고와의 경기에서 탈삼진 12개를 기록한 광주일고 에이스 정성철이 역투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정성철 12K…광주일고 16강행

충훈고에 2-1 역전승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광주일고가 제 6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에이스 정성철의 삼진 퍼레이드를 앞세워 16강에 안착했다.

24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황금사자기 2차전에서 광주일고는 신생팀 충훈고의 실책에 편승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4회 무사 3루 상황에서 구원등판한 정성철(3년)은 6이닝 동안 상대타선을 12탈삼진으로 꽁꽁 묶어 전국대회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신생팀 같지 않은 탄탄한 전력을 보인 충훈고에게 1회 선취점을 허용하고, 선발 최재돈의 기세에 밀려 이렇다 할 공격을 펴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일고는 5회 손명기의 2루타와 강백산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든 뒤 9회초 상대투수 정찬호의 폭투때 3루 주자 정승인이 홈을 밟아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일고는 청주기계공고-인창고 승자와 8강을 다투게 된다. 경기 일시는 추후에 결정된다.

한편 개성고는 군상상고를 1-0으로 제압하고 16강에 합류했다. 개성고 선발 박수환은 12이닝 동안 무려 1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대회 첫 완봉승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농구 국가대표 사령탑에 김남기씨

김남기(48) 전 연세대 감독이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게 됐다.

대한농구협회는 24일 오전 송파구 오륜동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남기 감독에게 남자대표팀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보 6명 가운데 기술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남기 감독과 김동광 전 안양 KT&G 감독 2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한 협회는 이사들의 투표 결과 14-9로 김남기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남기 감독은 신일고와 연세대를 나와 기업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기업은행, 프로 나산에서 코치를 지냈다.

모교인 연세대 코치로 자리를 옮긴 김남기 감독은 2002년 3월부터 연세대 감독을 맡아 2005년 3월까지 연세대를 대학 정상으로 이끌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코치, 2001년 오사카 동아시아대회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크래프트 PGA 푸에르토리코 오픈 우승

무명의 그렉 크래프트(미국)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크래프트는 24일 푸에르토리코 리오 그란데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코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사흘째 선두를 지켰던 보 반 펠트(미국)는 마지막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13언더파 275타로 제리 켈리(미국)와 함께 공동 2위로 밀렸다. 올해로 만 44세가 되는 크래프트는 1986년 프로로 전향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다. 1993년 미시시피에서 열린 디파지트 개런티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지만 PGA 투어 정규대회로 인정받지 못해 무명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재미교포 박진(31·던롭스릭슨)은 최종 합계 3언더파 285타,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쳤다.

"日 그린 평정하고 왔습니다"

일본 고치현 도사골프장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투어 요코하마타이어 PRGR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한 신지애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이바노비치 우승
ATP 퍼시픽라이프 오픈 남녀부

스물 한 살 동갑내기인 노박 조코비치(3위)와 아나 이바노비치(2위·이상 세르비아)가 준메이저급 테니스대회인 퍼시픽 라이프 오픈(총상금 358만9천달러) 남녀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 테니스가든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마디 피쉬(98위.미국)를 2-1로 꺾고 우승했다. 준결승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눌러 기세를 올린 피쉬와 맞붙은 조코비치는 한 세트를 내줬으나 3세트에서 서브 에이스를 5개나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이바노비치가 스베틀라나 쿠즈네초바(3위·러시아)를 2-0으로 완파해 올 시즌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최초「록펠러 회원권」비 상공회의소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오아레토츠타운 오픈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광주에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062)351-0095

■ 메이저리그 소식

병현 '급한 불' 진화
양키스전 9회 등판 무실점

빅리그 잔류와 탈락 앞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불펜 투수 김병현(29)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김병현은 24일 플로리다주 브래든턴 메케니 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시범경기에서 8-0으로 크게 앞선 9회에 등판, 세 타자를 땅볼과 플라이볼 2개로 요리했다.

김병현은 사흘 전 양키스전에서는 9-8로 앞선 8회 초 네 번째 투수로 나와 1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안타 3개와 볼넷 한 개로 4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이것이 결정타가 돼 김병현은 전날에는 마이너리그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와 시범경기에 등판하기도 했다. 존 러셀 피츠버그 감독은 오른손 타자 요리에 효과적일 것 같아 김병현을 데려왔는데 시범경기에서 맞은 홈런 5개 중 4개를 오른손 타자에게 허용했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트리플A 경기 등판은 곧 김병현을 마이너리그로 내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찬호 5선발 실낱희망
경쟁자 로아이사 등 부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5선발을 노리는 박찬호(35)에게 서광이 비치고 있다.

경쟁자 에스테반 로아이사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3선발 채드 빌링슬도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덕분이다.

로아이사는 24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투산 하이코벳 필드에서 계속된 콜로라도 로키스와 시범경기에서 2-5로 뒤진 6회부터 세 번째 투수로 등판, 3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고 3점을 줬다.

선발 등판한 빌링슬리는 4이닝 동안 8안타를 맞고 5점을 줘 안정감을 주는데 실패했다.

이날까지 시범 다섯 게임에 등판한 로아이사는 선발로 세 차례, 구원으로 두 차례 마운드에 올랐고 15이닝 동안 7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 중이다. 역시 세 차례 선발, 두 차례 구원으로 나선 박찬호는 16이닝 동안 3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1.69로 로아이사보다 안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